

‘연극공간-해’의 ‘관악아고라’ 문화예술교육 ‘판’ 만들기 5년의 기억과 기록_ 훑어보기

2022/9/15

2017년은 억압받은사람들의연극공간-해(解) (이하 극단 해로 표기) 에게 특별한 의미로 갖는다.

1997년에 창단되어 서울의 관악구에 자리잡은 지 20년이 채워지는 2017년, 극단 해는 서울문화재단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통해 본격적으로 ‘관악구’라는 곳을 바라보고, 경험하고, 만나기 시작했다.

2017년 전까지의 관악구가 사무공간과 연습실이 있는 ‘소재지’로서의 의미였다면, 2017년 서울문화재단의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사람과 생활, 환경과 역사, 공간과 지역이라는 입체적, 감각적 의미로 다가오게 되었다. 20년을 오갔던 관악구였지만, ‘관악아고라’ 프로젝트를 통해 비로소 관악구에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관계를 맺기 시작한 것이다.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은 ‘관계’를 통해 새롭게, 다르게 인식되고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알게 새삼 알게 되었다. ‘관악아고라’의 첫걸음은 ‘고시촌’이라는 특징과 ‘청년특구’라고 불릴 만큼 청년인구가 절대적으로 많은 관악구에서 ‘청년’들과의 프로젝트로 시작되었다. 당시 관악구에서 청년문화의 중심을 이루었던 청년문화공동체 ‘작은따옴표’의 협업으로 신림동 시장통 한가운데 자리잡은 지하 카페공간에서 매주 월요일 저녁 하루일과를 마치고 돌아온 바쁜 일과로 피곤하고 배고픈 청년 10여명과 밤늦게 까지 야식을 먹으며 ‘나’와 ‘우리’의 이야기를 풀어내고, 고민하고, 즐거워하면서 20여회의 만남을 이어갔고, 축제와 같이 소소한 ‘토론연극’ 발표회로 마무리하게 되었다.

2017 관악아고라 시: 청년 그리고 청소년의 목소리를 모으고 들려주는 작업

신림동 고시촌, 새로운 숲 (新林)이
청년의 숲으로 되살아나다

아프니깐 청춘...이라고?
고만해
라고 외치고 싶다면 ~
신청하세요

신림아고라 1기
2017년 5월 11일부터
매주 목요일, 19:00 ~ 22:00
* (작은따옴표) 1호점 (관악구 신림로5-1 B1) 에서

신림아고라 2기
2017년 7월 예정 (추후 공지)

주최·주관 : 억압받는사람들의연극공간-해
기획 : (주)연극
후원 : 세림, 서울문화재단
협력 : 관악구청, 작은따옴표
문의 및 연락처 : 070-4300-5474 / contact@linarc.net

서울문화재단
2017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기획공모 당선사업

신림동 고시촌
아고라 프로젝트

청년의 도시 신림동
꿈꾸는 청년과 지역의 이야기
일상의 삶을 연극으로 바라보다



연극을 통해 얻는 힐링,
관악 청소년에게 찾아오다!

아직도 혼자 고민 중이야?
고구마 먹은 듯 답답한 너의 마음에 "000"
라고 외치고 싶다면 ~

#관악 청소년 #아고라 #연극 #공정
#관악구의 주인공은 나 자신
#혼자서 걱정 그만하고 함께 웃길만 할까

주최 주관 역할받는 사람들의 연극공간 - 해
기획 (주연)이크
주연 사담, 서울문화재단
협력 관악구청, 작은 파출부, 관악구 자원봉사센터

공구는 청소년과 지역의 이야기
일상의 삶을 연극으로 바라보다

신일아고라 1기
2017년 5월 25일 ~ 9월 9일 (매주 목요일)
교육장소 : 작은 파출부 스투디오 1호실

신일아고라 2기
2017년 9월 5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5시 30분 시작
교육장소 : 관악구 자원봉사센터 교육실
문의 및 연락처
070-4300-5474 / contact@inarc.net

서울문화재단
2017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기획공연 청년사업

역할받는 사람들의 연극 공간

해

1997년 창립 이래로
교육적, 치유적 연극작업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전문단체로서,
특히, 소년원 청소년, 고도소 재소자, 재범, 결혼이주여성, 탈학교
청소년, 미주 노동자, 기차촌 여성, 미성모 등 사회적 소외계층과의
다양하고 지속적인 작업을 이어오면서 단체 고유의 연극특성과 역량을
발전시켜오고 있습니다.

'해'가 국내에 최초로 도입되고 한국에 정착화시켜 왔음, 발전시켜
활용하는 토론연극과 풀베어에 해당하는 전세계적으로 사회, 문화,
교육, 예술, 치료 분야에서의 활용 가능성과 효과를 인정받고 있는
연극연습으로, 다양한 대상과 다양한 환경에서 유연한 공연적 결과물
을 만들어내면서 '해'의 20년 이상의 현장적용의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7 관악 청소년 아고라 프로젝트

집

[관악 청소년의 목소리]

“너의 목소리를 들려줘”

개학은 하고...
고민은 많습네.
내 새깅 들켜서 사람들 어디 갔을까?
공부, 친구 문제, 사랑 문제, 혼자 공부하기 미안

대상 관악구 16~19세 청소년 우선 선별
이외 참여하고자 하는 다른 지역 청소년
* 참가비 없음

유망인원 20명 (선착순 모집)

일정 2017년 9월 5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5시 30분 시작
(주 1회, 3개월 간 진행)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contact@inarc.net
(성명, 연락처, 간단한 참가유기)
온라인 접수 <https://goo.gl/fo2E4M>



글이나 기사로 접하는 ‘관악’ 그리고 ‘청년’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관악이라는 지역과 공간에서 같이 살아가는 ‘청년’, 그리고 청년 문화단체, 네트워크와 같이 작업해본 경험은, 극단 해가 이후 관악구에서 지역활동을 하는 큰 힘으로 작용하였다.

2017년 상반기 청년들과의 ‘관악아고라’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 하반기에는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모으고, 드러내는 ‘청소년’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이런 저런 이유로 일반 정규 학교들을 벗어난 대안학교의 청소년들과의 만남이었고, 나이에 상관없이 각자가 겪고 있는 삶의 무게와 고민이 ‘청소년’ 답지 않게, 혹은 ‘청소년’이어서(?) 솔직 대담하게 서로 공유되며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토론연극’으로 발표회로 마무리된 이 프로젝트는, 2018년에도 해당 대안학교에서 지속하여 진행하기를 희망했지만 당시 서울문화재단의 방침상, 청소년은 지역특성화 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해서, 더 이상 인연으로 이어지질 못했다.

2017년 관악아고라는 결과적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지만, 20여년간 연극공간-해의 작업은 전국 어디에서나 사람들이 ‘모여진’ 상태에서 초대되어 진행했던 반면, 관악구의 이방인과의 같은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소개하고 참여자를 모집하고 관리를 해야 한다는 전혀 새로운 상황에서 시행착오와 진땀을 흘리는 수고를 해야 했던 건 사실이다. 문화예술교육은 발로 뛰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던 기획이었다.

2018' _ 관악아고리 : “세상을 바꾸는 마.마.들의 연극 만들기”

지역내엄마들과함께하는연극워크샵진행.개인적이면서 공공의 '가족' 이야기, 공동의 이슈를 담은 '토론연극' 발표로 공공의 문제를 공공의장에서 공공연하게 풀어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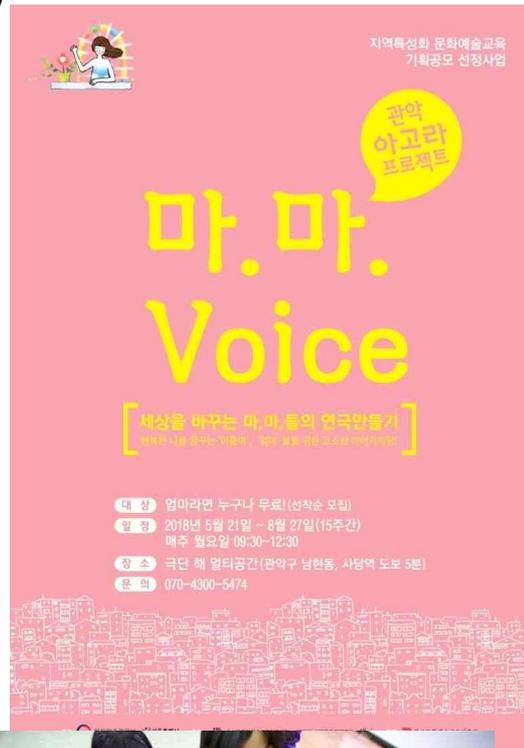
엄마야!

박민정 (참여자 자작시)

내가 넘어질 때도
엄마야!
엄마가 넘어질 때도
엄마야!
할머니가 넘어질 때도
엄마야!

아빠한테 미안해도
놀라고 힘들 땀
엄마야!

↓ <마마보이스>공연준비 모습 →



엄마

이명옥 (참여자 자작시)

태어나서 가장 먼저 배우는 말
살면서 가장 많이 부르는 이름

엄마를 통해서 세상을 배우고
엄마가 되어서 엄마를 배운다.



극단 해 신작 <인터-뷰> 관악아트홀 대극장 공연 '마.마.팀' 참여

2018년 아고라 프로젝트는 ‘엄마’를 참여자로 하여 30여회의 긴 만남을 통한 긴 호흡으로 진행되었다. ‘엄마’ 되기 이전에 ‘나’를 발견하고, 돌아보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나를 둘러싼 가족과 주변인, 공동체와 사회를 성찰하는 시간이 되었다. 자작시와 그림, 장면 만들기 등의 여러 가지 활동이 동반되어 ‘엄마’의 의미를 다시 찾아보고, 공동체로서의 가치를 다시 발견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마.마. 보이스 프로젝트의 이야기들은 관악구 내 싱글빙글 교육센터 다목적홀에서 간단한 공연 발표회를 통해 일반 시민들과 우리 시대의 ‘엄마’에 대한 공감과 공론의 장을 만들어내었다.

특히, 2018년 서울문화재단 공연장 상주단체로 관악문화관도서관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연극공간-해 의 신작 공연 <인터-뷰>에 ‘마마 보이스’ 참여자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갖고 배우로서 관악아트홀 대극장 무대에 오르는 기회도 누림으로써, 문화예술 향유와 성취감도 충족시킬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하지만,

2017~18년 시행착오를 겪으며 나름의 의미와 가치를 만들어 진행해오던 관악 아고라는 2019년 ‘입법연극’이라는 마지막 기획단계의 종착지까지 가지 못한 채 종단을 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연극공간-해 의 지역문화예술교육에서의 방향성, 형식, 접근방법에 대한 반성을 하는 시간을 갖게 되고,, 이후 지역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지금까지와는 다른 실험과 모색이 필요하다는 고민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다시 서울문화재단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사업으로 2020년~2022년 관악아고라2: 판을 새롭게 시작하여 진행하게 된다. 그리고, 새롭게 출범한 관악문화재단과의 협업은 새로운 지지기반이 되어주었다.

2020년 판2는 지금까지 연극공간-해 가 익숙하게 잘 하는, 늘 해오던 ‘억압받는사람들의 연극’ 기법을 활용한 ‘토론연극’으로 참여자를 모집하여 교육하고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 스스로가 원하는 ‘기법’을 찾아내고, 만들어내고,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한다는 차별점을 갖는다.

즉, 연극공간-해가 가진 ‘주도권’을 참여자들에게 이양시키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참여자의 능동성, 자발성, 선택권, 집단 역동, 협업이 관악아고라2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겠다.

누구에게나 중요한, 점점더 중요해지고 심각해지는 ‘기후환경’을 이슈로, 주제에 관심이 있고, 문화예술교육 활동에 관심있는 예술가, 활동가, 일반 시민들이 모여 스스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현장에 적용시킬 수 있는 ‘판’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목표였고, 이를 통해 기후환경에 대한 감수성과 공존하는 세계에 대한 책임감을 나누는 문화공동체를 형성해나가는 것이 지향점이었다.

2017~18년 관악아고라의 시행착오를 통해, 사실 한번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2020년의 관악아고라2:판2 가 만들어졌고, 다행스럽고도 놀랍게도, 2020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관악아고라2의 참여자가 ‘강사’가 되어 자발적이고 능동적, 창조적으로 그리고 집단 역동의 협업으로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3개의 기후환경이슈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가고 있고, 2022년 관악 문화플랫폼 S1472에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원데이(one-day)프로그램으로 선보일 준비를 하고 있다.

2020년부터 움직임, 그림자극, 영상을 활용한 모듬별 3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있으며(2020~21년 참여자 결과 발표회를 통해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2020년 참여자들은 2021년부터 RnD연구진이자 보조강사로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스스로 만들어가는 문화예술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2022년에는 아고라2:판3 는 기후환경 문제를 ‘쓰레기’를 화두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집중시켜 개발하고자 하고 있다. RnD 과정을 통해 10여명 연구진들은 인천 쓰레기 매립장을 답사하고, 좀더 흥미로운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AR작가의 초청특강으로 AR기법을 배우는 시간도 가지면서, 문화예술가들이 스스로 현장에서 자신의 ‘판’을 만들고 살아나가기 위한 연대와 공동체 문화를 다져가고 있다.

연극공간-해는 다음주 9/19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관악아고라2:판3’에 보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하고 오늘도 분주하게 달리고 있다. let's go~!

2020 관악아고라2 : 판



↑ 2020' 관악아고라2: 판 홍보이미지



↑ 프로그램 참여자의 콘텐츠 제작 과정(도림천)



↑ 판2 첫회기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모습



↑ 2020 코로나19로 인해 계획했던 단체 답사여행이 금지되자, 각자 나홀로 여행 후 여행기록 공유 ↓ (미션: 지금까지 안가봤던 곳에 가서 안해본 짓을 해보기)

1그룹

저는 아파서 여행을 못했는데, 이렇게까지 아픈 게 참 오랜만이라서 아픈 경험 자체가 여행 같았어요 -수진-



주은아 - 엄마와 떠난 도토리줍기 여행



최모미 - 아무런 아지트. 나에게 희망을 주는 최고의 선생님! 나도 그루브 엄청 타보고 싶다.

유주호 - 저는 신림동 뉴타운(삼성동)이라는 주제로 낯선여행을 했습니다. 삼성동 재개발이 확정되면서 여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외부로 쫓겨나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더라고요. 그래서 남아있는 것들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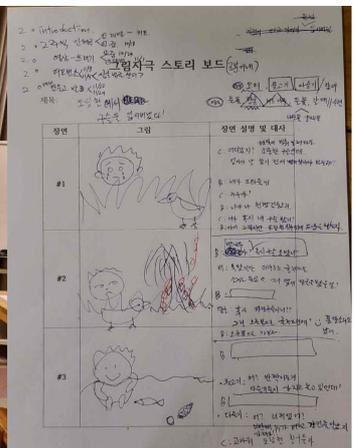
2021 관악아고라2 : 판2



↑움직임팀 - 판2 결과 발표회(공유회)- ↓쓰레기+영상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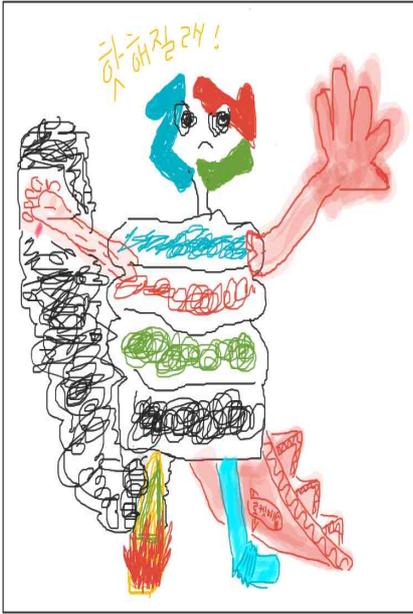


↓ 도림천 답사 - 도림천 생물다양성팀의 프로그램 진행 (스토리보드 짜서 그림자극으로 표현해보기)



↓ 쓰여팀(쓰레기의여행) : 쓰레기 영상팀의 쓰레기 캐릭터 창조. 스토리 창작, 영상작업까지

재활용쓰레기 캐릭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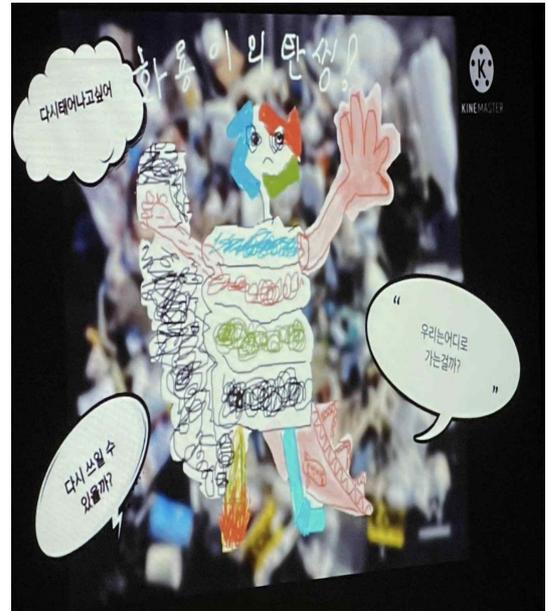
이름: 화롱이

성격: 눈치를 많이 본다. 짹짹하다
변함없다.
불같다.

과거에 배달 음식(마라탕) 많이 먹었을거같은 느낌

동작: 미어캣 끼기끼기끼

소리: 버려지는것보단 다시
바라는 것: 태어나고 싶어.



음식물쓰레기 캐릭터



이름: 얌쩍이

성격: 단순무식, 까칠

동작: 좀비처럼 흐물흐물(제대로 못걸음)

소리: 발을 제대로 못함(으어 으어)

바라는 것: 태어나지 않는 것 + 흙으로 돌아가는 것

기타: 미워하지 말아줘. 더럽다고 하지 말아줘. 먹을때 다르고 버릴때 다르냐. 네가 나야!





2022 관악아고라2 : 판3

2022 관악아고라2: 판3

2022 서울문화재단 지역혁신형 문화예술교육사업

관악아고라2

오늘은 습실만 하십니까?

함께 습실 수 있는 판을 만들어가는
기후환경 이슈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제작 문화공동체 아고라2:판

움직임과 그림지극 그리고 AR 기술이 만나는
2022년 "K-TRASH TRAVEL" 판3 프로젝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토론회, 플러이백세터 전문극단 '해'가
지역의 문화예술, 교육,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활동가분들과
기후환경 문화예술교육컨텐츠 공동실용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 관악아고라2: 판3)
2020년부터 기후환경 위기시대에 '쓸모있게' 쓰일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콘텐츠를 함께 만들고,
다양한 대상과 현장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3년차 프로젝트입니다.

극단 '해'와 함께 습실 수 있는 기후환경 문화예술교육 '판'을
만들어가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참 여 자 기후 환경과 문화예술에 관심있는 주민(성인) 누구나

운영기간 2022. 9. 19(월) ~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 10시

장 소 관악 상급종합교육센터 상급동 다목적강당 & 극단 해 멀티공간

발표장소 관악로 문화플랫폼 S1472 (예정)

내 용 이슈별 학습, 공동스터디, 콘텐츠 개발 및 발표 및 적용

신청기간 2022. 8. 29.(월) ~ 9. 16.(금) 3주간

신청방법 전화 예약 및 신청서 이메일 제출 (theaterhae@naver.com)
※ 참여신청서는 <https://blog.naver.com/theaterhae>
- 공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문의 T. 070-4300-1997 E. theaterhae@naver.com

이벤트 목적으로 인한 관악구의 필수피해 등으로
운영기간 및 신청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 2023 관악아고라2 : 판3 홍보물 이미지

↓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인천) 답사여행 (RnD 과정)



↓ AR작가 초청 특강 : 문화예술에 활용하는 AR기술 (RnD 과정)



↓ 수업준비활동 _ 그림자극, 움직임, 그리고 소리를 활용한 '쓰레기' 이슈 프로그램 모의수업 진행

